



문 건강검사 결과 간에 이상이 있다고 하 더군요. 그러나 저는 별다른 증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간장질환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던데 사실인지요. 만약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 폐에 병이 생기면 기침과 가래가 나오고, 위장에 병이 생기면 소화불량이 되는 것처럼 간에도 병이 생기면 특별한 증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안타깝게도 간에는 그런 것이 없다.

간장에는 신경이 없다. 다만 피막(皮膜)에만 신경이 있다. 따라서 간장의 내부에 생긴 고장에 대해서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황달이 비교적 중요한 증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간장질환만의 특유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황달 증세가 없는 간장질환도 있고, 간장질환이 아닌데도 황달이 생기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급성간염일 경우에는 황달이 나타나 는 수가 많지만 만성간염이 되면 별로 황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 간장 질환과 관련된 몇가지 증상을 스스로

찾아 낼 수도 있다.

우선 눈빛과 오줌빛을 잘 관찰해 보아야 한다. 눈의 흰자위에 노란 물기가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가벼운 황달증상의 하나이다. 황달의 증세가 심해지면 온몸이 노랗게 되지만 가벼울 때에는 피부의 빛에는 변화가 없다.

또한 오줌빛이 진한 암갈색이 된다. 때때로 거품도 노랗게 되는 수가 있다. 대변의 색깔도 변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때는 검은 색으로, 또 어떤 때는 흰색이 되기도 한다. 흰빛의 변이 나오는 것은 담도가 막혀 담즙이 섞이지 않기 때문이며 광택이 있는 검정빛 변이 나오는 것은 식도나 위장에 출혈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부가 가렵고 얼굴에 기미가 끼기도 하며 손바닥이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양치질을 할 때 구역질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증상을 반드시 간장질환 만의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귀하의 경우는, 검사를 받은 기관을 찾아가서 전문의의 상담과 정밀검사를 거친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문 황달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답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흐르지 않고 혈액에 섞여 전신에 퍼지기 때문이다. 담즙의 색깔이 진한 갈색이기 때문에 이것이 혈액에 섞이면 노랗게 보이는 것이다.

황달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간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다. 급성간염을 예로 들면 간세포가 망그러지면, 간세포가 생산해낸 담즙이 담도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에 스며들게 된다. 이런 것을 누출성(漏出性) 황달이라고도 한다. 급성간염 뿐 아니라 간경변증이나 간농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담즙이 새어나가 황달을 일으킬 수 있다.

또 하나는 담즙이 흐르는 통로가 막

혀버려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폐쇄성 황달이라고 부른다.

마지막 하나는 간장질환과 관계가 없는 황달로써, 적혈구가 녹아버려 핏빛이 노랗게 되어 생기는 황달이 있다. 이것을 용혈성(溶血性) 황달이라고 부른다.

문 간장질환이 생기면 피부가 가렵고 기미가 낀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간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가려움증이나 기미를 호소해 온다.

가려움증은 황달, 특히 담도폐쇄로 인한 황달 때 흔히 볼 수 있다. 피부에 발진이 없는데도 까닭없이 가려우면 이 병을 의심할 수 있다. 피부가 가려워지는 것은 피 속에 담즙산이 섞여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건협 서울지부부속의원장 이증범박사)

토막상식

감기·기침 예방에 배 주스를



배의 감기에 대한 효능은 무우와 흡사한 데가 있다. 목구멍의 통증, 구갈증 등에 좋고 구강염이나 기침 등에도 효과적이다.

*재료: 배 세개, 꿀 1큰술

*만드는 법

① 배는 껍질을 벗겨 네쪽으로 쪼개어서 속을 제거하고 믹서나 주서에 넣어 갈아낸다.

② 갈아낸 배에 꿀을 잘 섞는다.

*마시는 방법은 단번에 마시지 말고 목구멍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천천히 마신다.